

오늘의 延邊文學을 말한다

김학철의 「격정시대」를 중심으로

吳養鎬

문학평론가 · 인천대 교수

운명의 땅 間島의 抒情

한국에서 그간 상당량의 延邊文學이 소개되었다. 1983년에 간행된 「北間島의 韓人들」 이후 김파의 「흰뚝」(시집, '87. 2), 김학철의 「그녀는 고향에 다녀왔다」(소설집, '87. 9),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소설, '88. 7), 신동욱편 「고향은 언제나 내 가슴 속에」(시집, '88. 7), 리태수의 「춘삼월」(소설, '88. 3), 김학철의 「격정시대」(소설, '88. 4), 이육의 「중공교포 시인 대표작선집」('88. 8) 등이 있다. 이 밖에 「잊어버린 해란강」, 「중국의 우리민족」과 같은 책이 간행되기도 했다.

오늘의 연변은 옛 간도의 땅이다. 연변과 간도의 면적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모르나, 해란강, 송화강, 두만강, 압록강 그리고 그 너머의 넓은 땅을 생각하면 우리는 의례히 다음과 같은 식구나 노랫말이 머리에 떠오른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며 하리라.

일송정 푸른 숲은 늙어 늙어 갔어도/ 한줄기 해란강은 천년두고 흐른다.

陸史가 흘려놓은 무슨 예언같이 장중한 식귀, 그리고 언제 들어도 민족의 과거지사가 숙연하게 상기되는 선구자상, 또 근자에는 박경리의 「토지」 2부의 치열했던 민족적 삶의 현장을 영상으로 보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다. 반세기여전 울며 고향을 떠났던 동포들의 생활사가 긴 세월을 거슬러 다시 다가서는 가슴메이는 정황도 여기 오늘의 우리 독서현장에 와 있다.

압록강 파란 물결이
창문을 뜯는 려인숙
정을 누비며
잠들수 없는 이밤

강건너 언덕우에는
목매여 부르던 손길의
달빛에 걸려 있구나
밤에는 왜 유람선이 없느냐.

(鄭夢虎, 「려인숙」에서)

한스런 과거 때문에 아직도 밤이면 베개머리 적시는 현실, 유랑민 의식을 떨쳐버리지 못

하게 하고 있는 운명의 땅, 그 땅이 우리에게 「강건너」의 間島였고, 延邊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정적 감정이 얼마전에 간행된 「격정시대」에서는 생생한 에피소드를 통해 충격적 해방투쟁운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파란만장한 체험적 항일투쟁사

김학철의 장편 「격정시대」는 원산에서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주인공이 조선의 용군의 군관이 되고, 항일투사로 성장한다는 성년식이념소설이다.

이 소설은 15세의 주인공 서선장이 자기를 공부시켜주는 헌신적인 보호자 숙자 아주머니 몰래 상해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는 발원부에서부터 파란만장한 영웅적 일대기에 들어선다. 즉 항일투쟁의 영웅탄생을 예고하는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문학은 빛나는 저항문학의 예를 가지고 있다. 만해가 있고, 이육사가 있고, 심훈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직접 항일운동에 참가하고 그것을 문학체험으로 하여 그 상황을 형상화한 작품을 대하지 못하였다. 물론 우리에게 「님의 침묵」이란 엄청난 무게를 지닌 작품세계가 있다. 그러나 소설문학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 아닌가. 이런 것에 비하면 「격정시대」는 아주 다르다. 넓은 중국천지를 무대로 일본군에 철퇴를 가하는 통쾌한 복수극을 이 작품은 역사적 실존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박진감 넘치는 서사적 허구로 연출해내고 있다. 주인공 서선장의 일대기는 우리의 고대 서사문학에서 발견하는 영웅의 일대기에 가 있고, 넓은 북만주 거친 산야는 항일투사 초인탄생의 우주적 공간이 되어 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라고 읊었던 그 서사공간과 거짓말처럼 이어져 있다는 말이다.

이 소설이 주는 의미는 또 있다. 그것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일부이긴 하지만 민중적인 논리가 발견되는 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념당어리한 듯한 이 소설도 애정소설로서의 재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체험적 저항문학, 또는 기록문학적 성격을 지닌 점은 이 소설의 발단이 1929년의 원산총파업으로 되어 있고, 이어 광주학생운동, 장호원사건 이재유사건, 만보산사건으로 발전해나아가다 그 절정은 조선의용군이 일본군과 맞싸우던 태



항산 전투에 집중되어 있는 구성 때문이다.

元山 총파업은 1929년 1월 14일 상오 10시부터 시작되어 84일간 계속된 노동쟁의이다. 원산노동연합회 산하 단위노조인 문평석유공장노동자들의 동맹파업에서 발원된 이 쟁의는 그 지속성 강인성 격렬성 조직성에 있어서 일제하의 한국노동운동사상 최대규모의 대파업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파업의 결과는 이 운동이 단순한 경제투쟁이 아니라 반일민족투쟁의 일환으로서 민족해방운동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사건 후 5, 6개월 차이 밖에 없는 광주학생운동 발발에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이다.

서준원 사건, 일명 장호원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쓸 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한 서준원이 서울과 장호원 사이를 왕래하는 우편낭과 식산은행 현금을 털다가 체포된 사건이다.

1931년 여름에 터졌던 만보산 사건은 중국 길림성 만보산에서 관개수로 때문에 조선이민과 중국농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연일 각 신문에 게재되자 맹목적인 동포애에 피가 끓어올라서 머리가 뜨거워진 백의동포들이 애매한 청인, 즉 화교들에 분풀이를 한 사건이 아닌가.

사실적 재미 주는 허구적 敘事

이러한 민족운동의 핵심적 일들을 에피소드로 하고 있는 이 소설이 절정에서 지루할이 만큼 다루고 있는 태항산에서의 항일투쟁은 허구적 서사이면서 사실적 재미와 긴장감을 준다. 기록문학적 특성 위에 작가가 창조한 생동감 넘치는 주인공의 활약상이 주제를 자연스럽게 보완하기 때문이다. 평생을 버들잎 같은 나무매 — 야거리 한 척에 목숨을 걸고 살았기에 세상에서 제일부러운 것은 뚝도 노도 다 필요없는 20톤급 발동선이라서 아들 이름을 「선장」이라 지었던 서서방의 아들 서선장이

「원산에서 보통학교를 졸업 — 독지가에 의한 서울유학 — 제2의 운봉길이 되기 위해 상해로 잠입 — 중앙군관학교 입교 — 조선의용군 군관 — 태항산 항일유격대의 투사로 성장」 영웅을 탄생시키는 고난의 일대기를 그대로 거치면서 이런 민족의식은 무리없이 디테일화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큰 흐름의 영웅탄생의 일대기를 현대서사문학에서 불행하게도 거의 대해보지 못하였다. 주인공의 활동무대가 간도, 만주와 같은 민족적 야심을 불태우던 땅으로,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민족의 영욕이 무수히 명멸했으며, 숭한 인물들이 큰 뜻을 품고 싸우다 사라진 그 이야기를 이 소설은 복원하고 증언한다. 그래서 이 「격정시대」는 한국 현대소설문학의 흐름을 다른 시각에서 조용히 반성하게 한다. 그 뿐 아니라 이 소설은 그간 우리가 소설 속에서 잃어버렸던 초인의 탄생을 다시 만나게 해준다. 그리고 현대한국소설사가 안이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격동의 시대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난감한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구실도 해주고 있다. 이런 점은 가히 80년대 소설문학의 새 지평을 여는 역할이라 할 만하다.

연애소설로서의 재미는 송일엽으로 대표된다. 민족운동 때문에 몸까지 내던지고 있는 이미모의 댄서는 연하의 남성 서선장을 사모한다. 송일엽이나 서선장이 이데올로기의 화신, 이념의 꼭두각시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점이 바로 이 애정문제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 소설은 이미 잊혀졌던 많은 양의 우리말을 되살리고 있고, 1930년대의 이데올로기의 다른 한 뿌리를 보여줌으로써 절름발이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도와준다. 그러나 이 소설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혁명적 낙관주의는 작품의 생략된 후일담과는 관계없이 오늘의 시대의식에 비추어 볼 때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요소이다.